

### 3. 셋째 노래 (3:6-5:1)

셋째 노래는 아가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암시하는 4:16-5:1은 아가서 전체의 중심에 있다. 1:2-4:15까지가 111행이고 5:2-8:14까지가 111행이며, 4:16-5:1이 그 중앙에 있다.<sup>1)</sup>

#### 1) 성과 권력 (3:6-11)

개역	사역
6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6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저것은 무엇인가? <sup>2)</sup> 몰약과 상인의 온갖 유향이 피어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7 이는 솔로몬의 연(輦)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인이 옹위하였는 데	7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가마이다. 예수 명의 용사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들이 호위하네.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8 그들은 모두 칼에 능한 자이고 전쟁에 능숙한 자이며 밤의 위협을 대비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
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9 솔로몬 임금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 혔구나	10 그 기둥은 은으로, 그 등받이는 금으로 그 자리는 자주색 양모로 꾸몄다.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꾸며졌구 나.
11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 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씩운 면류관(冕旒冠)이 그 머리에 있구나	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아라.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이 즐거운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만든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이 구절에서는 마차 행렬의 화려함이 두드러진다. 처음부터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차’에 초점을 맞춘다. 사랑하는 여인이나 솔로몬 왕이 아닌 마차 행렬의 외적인

1) Gledhill, *The Message of the Song of Songs*, 147. Garrett도 WBC 주석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Song of Songs/Lamentations*, 31.

2) ‘저것’은 여성 대명사이다. 따라서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고, 다음 절에 나오는 여성형 명사, 곧 ‘마차’를 가리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가 문맥에 맞다. ‘미’[누구]라는 대명사는 ‘무엇’으로 옮겼다.

화려함이 중요하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장면 전환은 이 부분을 더 주의하면서 읽도록 긴장감을 높인다.

‘연기 기둥’은 광야에서부터 오는 마차가 일으키는 먼지인데, 가까이 오니까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난다. 연기 기둥이 아니라 몰약과 유향이 피어오르면서 가까이 다가온 그것은 솔로몬의 가마였다. 솔로몬의 마차(輦)는 향기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이 옹위하고 있다. 그 마차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고 금과 은과 자주색 양모와<sup>3)</sup> 사랑으로 장식되었다(9-10절).<sup>4)</sup> 특히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꾸며졌다고 하여서 마차가 작은 궁전과 같은 이미지로 제시된다. 솔로몬의 궁전에 많은 비빔과 후궁이 있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솔로몬의 마차에 대한 묘사를 한 후에, 솔로몬이 혼인식날 신랑이 쓰는 관을 쓰고 있으니(참조. 사 61:10) 예루살렘의 여자와 시온의 여자들은 나와서 그 모습을 보라고 외친다(3:11). 그렇지만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사랑은 그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다.<sup>5)</sup> 그리고 여기에는 마차의 화려함과 많은 여인의 사랑이 있으나 핵심인 신부는 빠져 있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가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없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왕으로 묘사된다.

이 장면을 솔로몬과 여인의 혼인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4장의 밝은 모습을 위한 부정적 배경으로 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6-11에서 솔로몬이 혼인하고 4장의 고백은 그러한 솔로몬의 말로 볼 수도 있고, 3장의 호화로운 혼인식 장면과 4장의 목가적인 배경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두 가지 점에서 3장과 4장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화로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sup>6)</sup>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3) 자주색 양모는 매우 비싼 것이었다. 1그램의 자주색 천을 얻기 위하여서는 뿔고둥 800개 가량이 있어야 하였고, 1그램의 자주색 천은 10-20그램의 금과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253.

4) 9절의 ‘연’은 7절과 다른 단어를 사용하였고, 성경에서 한번만 나오는 말이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어떤 학자는 기둥을 세우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것은 마차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솔로몬의 궁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7절에서 이야기한 마차를 타고 솔로몬의 궁전에 왔다는 것이다. I. Provan, *Song of Songs*, 300-301.

프로반은 ‘유향’을 제사와 관련하여서 해석하지만(3:6), 4:6, 14에서는 여인의 향기로도 묘사한다. 여인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다.

5) H. Ohmann, *Song of Songs*, 62.

6)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236; 김구원, ???; 앤드류 황과 사무엘 고, ???

여인을 찾아오는 것은 아가서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 아가서에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였고 아가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궁궐이 아니라 목가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둘째, 솔로몬은 아가서에 일곱 번 등장하는데(1:1, 5: 3:7, 9, 11; 8:11, 12) 이 문단에만 세 번 나온다. 8장에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솔로몬의 포도원과 목자의 포도원이 대비된다.<sup>7)</sup> 솔로몬의 포도원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실과를 위해서 은 일천을 내고 실과를 지키는 자는 은 이백을 얻는다. 솔로몬은 포도원으로 상징된 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지만 자기의 포도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8:7). 솔로몬에 대한 아가서의 표현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솔로몬은 여전히 마차의 화려함과 많은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혼인의 핵심인 신부는 빠져 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아가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이 부분은 4장의 밝은 사랑 고백을 위한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sup>8)</sup> 여기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권력과 부가 있지만 쓸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고 많은 여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혼자이다.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은 호화로운 궁궐이 아니라 동산이다. 4장에서 건강한 사랑의 이야기를 읽는다.

## 성과 권력

아가서는 에덴의 배경에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와 대비되게 사랑이 오용되는 모습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여인을 얻는 일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권력과 부귀로써 여인을 얻으려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권력과 부가 집중된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지도 말하고 있다. 가장 찬란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가장 쓸쓸하고 황폐한 모습이 나타난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하나도 없다. 자기의 힘을 여인에게 쓴 왕의 모습도 보여준다(잠 31:3).

권력으로 성을 얻으려는 것은 혼인을 앞에 둔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40대의 성공한 남자들의 성적인 일탈이 많다. 자기의 부와 지위로 젊은 여인을 사려고 하는 것은 옛날 왕궁에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이다. 폭력으로 사랑을 얻으려는

7) 룡맨은 ‘아가서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Song of Songs*, 136.

8) Garrett은 3장의 솔로몬은 ‘이야기의 등장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Song of Songs*, 181.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힘이나 권력이라는 합법적인 옷을 입었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었든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솔로몬이 가진 영화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많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비싼 향품으로 단장하여 솔로몬의 눈에 들기를 바란 것처럼(46) 요즘 여인들도 외모를 꾸며서 권력이 있는 남자를 얻으려 한다. 그렇지만 권력과 부를 소유한 남자를 외모로, 혹은 지적인 미로 유혹하려는 여인도 사실은 권력과 부로 여인을 사려는 남자와 똑같다. 한 사람은 사려고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팔려고 한 것뿐이다.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다. 혼인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지만(잠 18:22) 그러한 사람들은 혼인을 신분 상승의 중요한 기회로 여긴다.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아내를 자기의 능력이나 부로써 얻으려는 사람은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으로써 남자에게 접근하려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혼인도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사랑도 권력과 부로써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아 시대의 모습과 같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용사로서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남자의 권력과 지위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얻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폭력과 쾌락이 난무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아가서에서 그려 내는 사랑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오늘날에도 깊은 가르침을 준다. 여러 종류의 폭력이 행하여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참된 사랑이 재물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궁정의 사랑의 예를 들어서 생생하게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에서 참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목동과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대하여서 웃을 수 있다. 거기에 참된 사랑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여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고, 이러한 여인은 여호와의 선물로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사람의 재물이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 2) 남자의 고백 (4:1-15)

남자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는 “아, 아름답다 나의 사랑 그대!”라는 감탄으로 시작해서 “나의 사랑, 그대는 온전히 아름답구나”는 말로 마무리된다(4:1-7). 그리고 그 중간에서는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묘사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을 ‘와쓰프’(wasf)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가서에는 네 번 나온다. 네 편의 노래 중에서 셋은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4:1-5; 6:4-7; 7:1-5), 하나는 여성이 남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5:10-16).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움을 돌아가면서 노래하고, 위에서 아래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노래하되, 은유나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상대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신부를 초청한다(4:8-15). 먼저는 레바논에 있는 여인에게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부르고(4:8-9), 여인의 사랑이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고백하고(4:10-11), 여인을 물이 흐르고 향기로운 각종 나무들이 있는 동산으로 비유하면서 잠긴 동산을 자기에게 열어 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4:12-15).

이 부분에서 여인을 레바논과 연결시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처음에는 여인이 레바논 산에 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다가(4:8) 가까이 왔을 때에는 레바논의 향기를 내뿜고(4:11) 마지막에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서 그를 흡족하게 한다고 표현한다(4:15). 멀리 있는 여인에게 사랑의 노래를 하여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표현한다.

### <4:1-7: 신부에 관한 노래>

개역	사역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1 아, 아름답다, 나의 사랑 그대! 아, 아름답다, 그대!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의 눈과 같구나.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산기슭을 뛰어 내려오는 염소 떼와 같구나.
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양 곧 새겨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2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sup>9)</sup> 목욕하고 올라오는 양떼 같고, 모두 짝을 이루니 하나도 빠진 것이 없구나.
3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3 진홍색 실과 같은 그대의 두 입술,

<p>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4 네 목은 굳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6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빠서 아무 흠이 없구나</p>	<p>그대의 입이 아름답구나. 너울 속의 그대 볼은 벌어진 석류같구나. 4 다윗의 망대와 같은 그대의 목, 돌들을 층층이 쌓아 지은 것,<sup>10)</sup> 거기에 방패 천 개가 매달렸으니 모두 용사들의 방패로구나. 5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사이에서 꿀을 뜯고 있는 사슴 한 쌍, 쌍둥이 노루와 같구나. 6 날의 바람이 불고 그림자가 물러날 때까지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올라가리라.<sup>11)</sup> 7 나의 사랑, 그대는 온전히 아름답구나. 그대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구나.</p>
--	--

4장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 비친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즉 여인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남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다. 여인은 자기가 가꾸지 못한 포도원이고 얼굴이 거무스름하다고 이야기하였지만(1:5-6) 사랑하는 남자는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보고 있으며 뺨도 석류 한 쪽에 비유한다.

여인의 몸을 묘사하되 눈, 머리털, 이, 입술과 입, 뺨, 목, 유방과 같이 모두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서 목가적인 배경에서 하나씩 그려내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아름답구나, 흠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감탄사를 발한다(4:7).

남자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먼저 눈에서부터 시작한다. 전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고 수줍음을 잘 탄다고 하였는데(1:15) 이제는 여인의 눈을 비둘기처럼 맑다고 한다. 내면 세계의 반영이자 통로인 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눈길이 만나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만나는 것이다. 사랑은 육체적인 만남만은 아닌 것이다.

여인의 눈을 얻은 그는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씩 묘사하는데 둘째로 말하는 것은 머리카락이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머리에 마음을 많이 쓰고, 중이나 수녀들은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감춤으로써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만큼 머리는 사람의 외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목동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

9) 직역하면 ‘털이 깎일 양떼, 곧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떼’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을 깎기 전에 목욕을 시켰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장에서 올라온 양떼가 흰색이듯이 사랑하는 여인의 치아가 흰색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

10) ‘탈피오트’는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이다. 망대의 건축술을 염두에 두고서 “courses of stone”을 ‘층층이 쌓은 것’으로 옮겼다.

11) ‘나는 반드시 간다’는 뜻이다. 산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살려서 ‘올라간다’로 번역하였다.

락이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활기차게 그려낸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산기슭에서 뛰어 내려오는 양떼와 같다고 한다. 이것은 여인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그리는 말이다. 목동도 그 여인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셋째, 남자는 이어서 치아에 대한 묘사를 두 가지로 한다. 양털을 깎기 전에 목욕을 시켰는데, 여인의 치아가 목욕장에서 나와서 털을 깎은 양처럼 깨끗하다고 한다. 목욕도 하고 털도 깎아서 단정해진 양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가 깨끗하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 치아도 누렇게 변하는데, 이 여인은 젊고 건강 상태가 좋아서 치아도 하얗고 건강하다. 둘째, 이를 쌍테를 낳은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위아래에 빠진 것이 없이 고르게 나 있는 치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한 치아를 묘사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그려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에 상대의 치아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두 입술은 진홍색 실과 같이 색이 분명하고 입도 아름답다고 한다. 여기에서 ‘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사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상적이지 않은 용례를 사용한 것은 ‘사막’이라는 일상적인 용례와 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3:6에서는 솔로몬의 가마가 올라오는 ‘사막’은 황량하지만 여인의 ‘입’[사막]은 입을 둘러싼 뺨과 함께 석류처럼 다산의 장소이다.<sup>12)</sup>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우 친밀하게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있다.

다섯째, 뺨은 석류와 같다고 한다. 입술과 입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뺨은 석류처럼 붉다고 한다. 이것은 얼굴 전체를 묘사하는 말이고 입안은 잘 익은 석류의 속과 같음을 상상하게 한다. 뺨이 너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너울로 강렬한 태양빛을 가리고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목이 망대와 같다고 하는 다음 구절을 보면, 히잡이나 차도르를 두른 중동 여인의 모습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sup>13)</sup>

여섯째, 여인의 목을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묘사하였다. 갑자기 군사적인 용어가 나와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에서도 여인을 바로의 병거들 사이에 있는 암말로 비유하였다. 이러한 말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여인의 위엄과 품위, 그리고 함부로 힘으로 눌러서 빼앗을 수 없는 기품일 것이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인의 아름

12) ‘입’과 ‘사막’의 대비에 대한 해설은 다음을 보시오. I. Provan, *Song of Songs*, 316-17; R. Hess, *Song of Songs*, 132.

13) 너울 모양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나 머리를 덮고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아하게 보이는 옷차림이다. D. Bergant, *Song of Songs*, 44.

다음은 부드럽고 애교가 많고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이 멍하거나 흐릿하지 않고 망대와 같은 기품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견고함과 강함이 아름다운 다음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망대는 억지로 제압할 수 없다. 여인의 사랑은 여인의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참조. 87). 사랑은 솔로몬처럼 권력이나 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이 무장한 군인을 의지하여서 사랑의 행각을 벌이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인의 엄위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여인의 가슴을 묘사한다.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와 같다고 한다. 노루 두 마리가 풀밭에서 풀을 뜯듯이 유방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하여서 표현한 것이다. 아마 함께 걸으면서 여인의 가슴이 쌍태 노루처럼 나란히 아름답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러한 말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는데, 노래의 결론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46)는 다짐이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려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다. 목동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묘사된 여인의 가슴을 안고 즐거움을 취하겠다고 한다.<sup>14)</sup> 2:17에서는 여인이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언덕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리로 향하는 것으로 말한다.<sup>15)</sup> 마지막으로 하는 7절의 이 고백은 6절에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겠다고 고백한 다음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몰약 산과 유향 언덕에 오른 다음에 하는 고백임을 암시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일곱 가지로 이야기한 후에 ‘온전히 아름답고 흠이 하나도 없다’는 말로 전체를 요약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고 선언하신 것처럼, 일곱 가지의 찬미 후에 ‘온전히 아름답고 흠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은 창조의 정점을 생각나게 한다.<sup>16)</sup> 우리는 그 사랑이 에덴의 배경에서 전개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다음을 읽는다.

#### <4:8-15: 신부를 초청함>

개역	사역
----	----

14) J. C. Exum, *Song of Songs*, 166.

15) R. Hess, *Song of Songs*, 137.

16) 더글러스 손 오도넬, 『아가』, 106; H. Ohmann, *Song of Songs*, 64.



<p>8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p> <p>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 았구나</p> <p>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勝)하 구나</p> <p>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 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p> <p>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텃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p> <p>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p> <p>14 나도와 변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p> <p>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p>	<p>8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의 신부야,<sup>17)</sup>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나오라. 아마나 산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산 꼭 대기에서, 사자들 굴에서, 표범들의 산에서 내려오라.<sup>18)</sup></p> <p>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대의 눈빛 하나로, 목걸이의 구슬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p> <p>10 그대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고 그대의 향유 내음은 그 모든 향품보다 더 좋 다.</p> <p>11 나의 신부야, 그대 입술은 꿀방울을 떨어뜨리 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그대의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구나.</p> <p>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sup>19)</sup> 잠근 우물, 봉한 샘이라.</p> <p>13 그대의 새싹들은 석류나무 정원이고<sup>20)</sup> 온갖 극상품 과일과 고벨화와 나도초,</p> <p>14 나도와 사프란, 창포와 육계, 온갖 유향 나무들, 몰약과 침향, 온갖 극상품 향품들이라네.</p> <p>15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 내로구나.</p>
--	--

남자는 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함께 가자고 초청한다. ‘함께’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자고 간절히 청한다. 남자는 여인이 레바논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초청한다.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는 말을 두 번 반복한다. 레바논과 더불어서 북쪽에 있는 높은 산들인 아마나, 스닐, 헤르몬을 열거한다.<sup>21)</sup>

17) 8, 9, 10, 11, 12절의 ‘나의 신부’에서 ‘나의’는 첨가한 말이다.

18) ‘슈르’는 (1) 내려오다 (2) 바라본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개역에서는 ‘바라본다’는 뜻으로 옮겼지만 전반절의 ‘오다’(보)와 병행구임을 생각하여서 ‘내려오다’로 옮겼다.

19) ‘잠근 동산과 잠근 우물’은 히브리어로 ‘간 나울, 갈 나울’이다. 언어 유희를 볼 수 있다.

20) ‘정원’으로 번역한 말은 ‘파르테스’이다. 페르시아어에서 차용한 것이고 그리스어 표기는 영어의 paradise가 되었다.

그 산들은 평균이 2000미터를 넘고, 높은 산은 3000미터가 넘는다. 북쪽에 있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시인이 볼 때는 멀리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사자와 표범의 굴도 있다. 따라서 시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여인을 바로의 군마나 다윗의 망대로 비유하였는데 (1:9; 4:4), 이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레바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여기에서 ‘레바논’이라는 단어로 언어의 유희를 한 것을 아울러서 생각하여야 한다. 유희가 히브리어로는 ‘레보나’이고, ‘레바논’과 자음이 똑같다. 4:6에서는 여인을 유희의 작은 산으로 묘사하면서 그 산에 가서 즐거움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4:8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레바논 산지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시인은 여인이 ‘레보나’의 산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레바논’의 산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멀리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금방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멀고 접근할 수 없음을 이러한 언어의 유희로 표현하였다.<sup>22)</sup>

여인을 가깝고도 멀게 느끼는 것은 여인을 약하고도 강하게 묘사하는 것과 연결된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를 사자의 굴과 표범이 사는 산이라고 설명하고, 여인이 그러한 곳에 산다고 한다. 앞에서는 여인을 비둘기와 같이 수줍고 백합화와 같이 가냘프게 비유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자와 표범과 함께 사는 강한 자로 이야기한다.<sup>23)</sup> 사자와 표범이 사는 것과 같은 높은 곳에 고고하게 거주하고 있는 여인에게 자기에게 올 것을 청하는 것이다. 솔로몬처럼 권력과 부로써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사랑을 호소하여서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sup>24)</sup>

가깝고도 멀며 약하고도 강한 여인에게 남자는 사랑을 고백한다.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입발림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21) 아마나는 열왕기하 5:12에서는 다메섹 강이 흐르는 곳으로 나온다. 북쪽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다메섹으로 흐른다. 스닐은 헤르몬 산이거나 헤르몬 산의 일부로 생각된다. 신명기 3:9와 헤르몬 산을 아모리 사람들이 스닐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역대상 5:23에서는 헤르몬 산과 함께 나온다. 헤르몬 산은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시편 104:16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하나님께서 심고 물을 준 것으로 가르치고, 에스겔 31:7-9에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보다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크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레바논이 위험하지만, 거기에 정원이 있음을 암시한다. J. C. Exum, *Song of Songs*, 170.

22) R. Hess, *Song of Songs*, 140.

23) 여인을 사자와 표범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쉬타르 여신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Keel, *Song of Songs*, 97.

24) 여인이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에 산다는 말을 위험한 곳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권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것처럼, 여인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밀한 사랑을 얻으려면 남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을 돌보고 자기에게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생각이지만, 여기에서는 남자의 호소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남자가 돕는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여인의 마음에 호소한다. 이것은 무력으로 위협하고 권력으로 꺾면서 여인의 사랑을 얻으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른다(9, 10, 12절).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기로 원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누이라는 말로 신부라는 말을 보충한다. 신랑과 신부는 이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되지만, 누이는 가족으로서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내 누이’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지내라고 가르쳤다(잠 7:4). 남자는 신부라는 말을 누이라는 말로 보충해서 표현한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나의 신부’와 ‘나의 누이’로 부르면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한다. 자기가 여인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인의 눈과 목에 남자는 마음을 빼앗겼다. 망대와 같은 목을 가진 여인이 어찌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남자는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여기에서 여인의 매력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여인의 매력은 망대와 같은 견고함과 내면의 맑음을 표시하는 눈에 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지나친 노출로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려는 것은 ‘권력을 지향하는 성’이다. 현대의 그러한 경향은 에덴을 배경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타락하고 왜곡된 성의 추한 모습일 뿐이다.

10절에서 남자는 여인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다시 부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데, 특별히 여인과의 입맞춤을 노래하였다.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낮고 어떤 향기보다도 좋은 것이라고 한다(4:10). 1:2에서는 여인이 남자와의 입맞춤을 노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남자가 여인과의 입맞춤을 노래한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또한 입맞춤은 한 여인과 한 남자만이 서로를 마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대감에서 나누는 것이다.

11절에서는 깊은 입맞춤을 꿀과 젖으로 비유한다. 히브리어에서는 ‘꿀방울’이 문장의 처음에 나온다.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와 달리 꿀방울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설탕이 첨가된 식품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꿀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몸에 필요한 당분을 꿀에서 섭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요긴한 음식이었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라고 하여서 입맞춤이 더 깊게 진행됨을 표시한다. 젖으로 번역한 우유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양식이었다. 젖과 꿀은 맛있는 것일 뿐 아니라 몸에 요긴한 것인데, 이러한 표현으로써 남자는 여인의 사랑이 자기에게 가장 요긴한 것임을 고백한다.

젖과 꿀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을 가리

킨다(출 3:8, 33:3; 신 6:3; 수 5:6 등). 그들의 사랑은 솔로몬처럼 황막한 광야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나누는 것이다.<sup>25)</sup>

사랑하는 여인과 입을 맞춘 남자는 여인의 향기를 노래한다. 신부라면 혼인식 날에 특별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 여인의 향기를 말할 때 ‘레바논의 향기’라고 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나오는 신선함과 상쾌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늘로 솟은 큰 침엽수 나무 사이를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상쾌함을 여인에게서 맛본다. 이것은 도로나 궁전의 향락적인 냄새와는 다르다. 또한 여기에서 ‘레바논’과 ‘레보나’(유향)의 언어의 유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6)</sup> 8절에서 여인이 레바논에 거하는 것을 유향(레보나)처럼 가까이 있으나(46, 14)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를 표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인이 레바논에서 내려와서 레바논의 향기를 내뿜는 것을 표시한다. 유향과 레바논의 향기가 어울려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12-15절은 여인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명사를 사용한다. 우물과 샘, 과일과 향료 등으로 여인을 표현한다. 동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에 빗대어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12절과 15절에서는 동산과 샘과 우물로 비유하고, 중간에 해당하는 13-14절에서는 각종 열매와 향료로 표현한다. 동산에서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12절-15절에는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 12절은 “**잠근 동산, 나의 누이와 나의 신부, 잠근 우물, 봉한 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근 동산’이라는 말을 맨 앞에 두어서 여인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말로 삼았다. 고대근동에서는 집 안에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리하는데 필요한 향신료를 재배하거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집 안에 있는 정원은 외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시편 128편에서 내실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외인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정원의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쉬는 것을 큰 평화로 생각하였다(왕상 4:25; 미 5:5. 참조. 전 2:5).<sup>27)</sup>

‘잠근 동산’은 ‘잠근 우물과 봉한 샘’으로 보충된다. ‘잠근’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봉한’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여서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은 순결함을 강조한다. 잠근 동산에는 잠근 우물과 봉한 샘이 있는데, 남자는 자기의 신부에게 잠근 동산을 열어서 자신이 들

25) I. Provan, *Song of Songs*, ??

26) R. Hess, *Song of Songs*, 146.

27) O. Keel, *The Song of Songs*, 169-174.

어갈 수 있게 하고 잠근 우물과 봉한 샘에서부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구한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활력을 상징하였는데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만 그것을 얻고 싶어 한다.

물이 흐르는 그 동산에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초, 나도, 번홍화, 창포, 계수,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 있다(4:13-14). 각종 값진 향료들이 많이 열거되었는데 이것은 그 동산에서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을 충만하게 묘사하는 것이다(참조. 잠 7:17). 나도초는 가장 값진 향수이고(1:12), 고벨화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향료이다(1:14). 13절에서는 가장 값진 것부터 시작하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향수를 열거하였다. 14절에도 여러 좋은 것들이 나온다. ‘각종 유향목’은 동산에 향기로운 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 나오는 향품들은 대체로 인도나 아라비아나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것인데, 그러한 향기를 내는 나무를 옮겨 심은 것으로 묘사한다. 남자는 그 동산에서 여인의 각종 향기에 취하기를 원한다(참조. 잠 7:17).<sup>28)</sup>

15절부터는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서 묘사를 하는데(참조. 12절), 특별히 동산의 샘을 말한다. 동산의 샘을 ‘생수의 우물’이라고 한다. 동산의 샘에서 흐르는 그 물로 인해 동산 안에는 향기로운 나무들로 가득하고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맺히며 남자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취한다. 동산의 샘을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한다. 만년설이 있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갈릴리 호수로 흐르고 요단 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른다.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다. 레바논은 지금의 고란 고원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쟁하면서 이 지역을 강점한 이유는 이곳이 물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동산의 샘은 고여서 썩고 있는 물이 아니라 레바논의 생수처럼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시원하고 활력이 넘친다. 사자나 표범이 살고 있고 거대하고 깊은 레바논 산에서 내려온 여인은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준다.

물이 넉넉한 동산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여인 전체를 놓고서 잠근 동산이고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이다.<sup>29)</sup> 봉한 샘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서만 열린다. 여인의 내밀한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자기를 누이라고 친밀히 부르는 사랑하는 그 사람뿐이다.

둘째, 이러한 내적인 연합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잠언 5:15-23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것으로 부부의 충만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담담한 물은 음녀의 꿀보다 더 깊은 맛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잘

28) R. Hess, *Song of Songs*, 150.

29) R. Hess, *Song of Songs*, 142.

신 신랑은 신방에서 나온 해처럼 힘껏 달릴 것이다(시 19:5). 잠근 동산에서 나오는 물은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이다.

### 3) 여인의 응답과 혼인 잔치 (4:16-5:1)

#### <여인> 4:16

개역	사역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너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들어오게 하라. 그가 그 동산의 과일을 먹기 원하노라.

16절은 바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풍과 남풍이 동산으로 표현되는 여인에게 붙어서 향기를 날리 퍼지게 하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랑하는 남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 그 향기의 근원인 여러 과실을 먹으며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남자의 청에 대해서 여자는 그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바람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답한다. 북풍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일깨운다’는 말과 같다(2:7; 3:5; 8:4).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랑을 일깨우지 말라고 하던 여인이 이제는 북풍과 남풍이 일어나서 자기의 향기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날리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에게서부터 동산의 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아가고 그 사람이 그 향기를 따라 들어와서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먹기를 원한다고 초청하였다. 잠긴 동산이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열린다.

여인은 자기를 ‘나의 동산’이라고 하였다가 ‘그의 동산’이라고 한다. 바람이 ‘나의 동산’에 불지만 그 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그의 동산’이라고 한다. 바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한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열어 보인다. 남자의 구애를 받은 여인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주되 충만히 준다. 동산으로 묘사된 여인에게서 남자는 흡족한 즐거움을 누린다. 그들은 사랑의 동산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눈다.

#### <남자> 5:1ab

개역	사역
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으로 왔댜오. 나의 몰약과 나의 향품을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내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신댜오.

남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인을 “내 동산”이라고 부른다. 앞에서 여인이 “그의 동산”이라고 하면서 잠근 동산을 열어 주었고(아 4:16) 남자는 여인을 “나의 동산”이라고 한다. 여인이 마음과 몸을 열어서 주었을 때 그 여인은 남자의 것이 되었다. 이러한 사랑은 솔로몬의 권력이나 보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여인은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속하였다(2:16).

남자는 연인이 주는 사랑과 즐거움을 “나의 몰약과 (나의) 향재료, 나의 꿀송이와 (내) 꿀, 내 포도주와 내 젖”이라고 표현한다.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여러 명사들 앞에 다 붙여서 그 여인이 자기에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오는 향료나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원해 주는 기쁨을 독점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취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들어와서’ ‘거두고’ ‘먹고’ ‘마셨으니’라는 말은 남자가 여인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묘사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이고 개역에서도 과거로 번역하여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눈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아가서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어렵다.<sup>30)</sup> 여기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다음에 나오는 장면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 (합창) 5:1c

개역	사역
1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취하여라. <sup>31)</sup>

이 구절은 누가 말하는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렵다. 첫째, 합창하는 자들이 부부의 즐거움을 취하는 두 사람을 친구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그 즐거움을 취하라고 격려한다.<sup>32)</sup> 혹은, 신랑이 친구들을 혼인 잔치에 청해서 먹고

30) J. C. Exum, *Song of Songs*, 181-2.

31) ‘도둑’을 ‘사랑하는 자들’로 옮기면 ‘친구들’과 동격이 된다.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도둑’이 육체적인 사랑을 표시하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으로 보고 ‘사랑에 흠뻑 취하라’고 옮기기도 한다(TNK, ESV, NLT).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32)</sup> 그럴 경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적용된다.

## 광야와 동산

4:6-5:1에서는 두 가지 사랑이 대비된다.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등장하며 많은 여인 사이에 있는 솔로몬과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과 동산을 얻은 목동을 대비하면서 두 가지 사랑을 비교한다.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서, 사랑은 솔로몬처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마음에 호소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임을 노래로 제시한다.

아가서 4장은 동산의 배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낸다. 아가서의 사랑은 아름답고 맛있는 것으로 가득한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그린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금욕의 종교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 다르다. 또한 ‘에로스’와 ‘아가페’를 엄격히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에덴에서 나누는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솔로몬의 사랑과 목동의 사랑을 비교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다운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게 된다. 목동과 여인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사랑을 구하고, 상대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권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됨을 생각하게 된다. 권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솔로몬의 사랑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 교감이 없는 ‘텅빈 사랑’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32) I. Provan, *Song of Songs*, 120; J. C. Exum, *Song of Songs*, 182-3.

33) Keel, *Song of Songs*, 184.